

양돈전문 직업인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양돈업계도 자격증제도를 만들어야

안녕 하십니까.

양돈인을 위한 좋은책을 매월 발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한 양돈협회 전 동용 회장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양돈지를 항상 애독하는 독자이며 축산(양돈)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9년 동안 양돈업에 종사해온, 자영도한 경험이 있으나 역시 직업인으로서 만족을 더 찾는 경영주가 아닌 사람으로서, 양돈 전문직업인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무엇인가 양돈업계의 보탬이 될까하여 또한 양돈계의 발전을 위해 몇 말씀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양돈업계는 물론 타 축산업계에도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인력수급의 난점을 해소하고 축산인의 질을 향상 시키는 한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축산의 최고학부 또는 수의의 최고학부를 갓 졸업한 사람들은 실무에 밝지 못해 많은 시간을 실무에 종사한뒤 이론과 경험이 이루어지며 실무에 밝은 현장인은 이론에 밝지못해 수많은 책을 탐독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노력끝에 이론,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따라서 양돈계를 총 망라해서 자격증시대를 개막하여 협회에서 이를 주관하여 가칭 사양사 자격증 또는 사양기사 자격증과 같은 제도를 통해 공개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취득자는 양돈업계에서 인정하여 주며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수는 없는지요.

경영주도 무조건 인력만 확보할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소유자를 택하여 인력의 급료안정과 잦은 이직으로 생활에 지장을 주는것을 없애고 공부하며 경험을 쌓는 전문 양돈 직업인은 전 양돈업체에서 인정 뒷바라지 해주어 밝고 소득이 높은 고차원적인 畜産界를 만들수는 없는지요. (농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시험을 실시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많은 종사자들은 자질을 향상

이론적인 공부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것이다

장 전 인력을 상대로 자격을 강요할 수 없지만, 책임자 또는 전문담당자에 한하여) 기술의 고등고시라는 국가기술시험의 최고봉인 기술사 자격증처럼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시험을 실시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많은 종사자들은 스스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이론적인 공부 실질적인 경험등을 쌓아나가서 보장 받고자 할테니 지금 양돈계가 구전으로 인력을 구하는 어려움과 난점의 폐습을 없애고 전문직업인들은 스스로의 긍지를 가지고 전념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증 제도에 따라 많은 양돈인을 공부하게 하여 사양관리면의 좋은 활력이 되고 양돈인은 전부 공부하는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축산업계에 정착 시킬수는 없는지요.

물론 지금의 불황타개를 위해 모돈을 줄이자는 결의대회등 수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수 없는점, 홍보에 호응해서가 아닌 어쩔수 없이 모돈을 도태시키는 실정에 있는 경영주들의 다음호황을 보는 자세는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홍보활동에 협회직원 및 지부의 모든분들의 노력이 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자격취득 양돈사양사가 각 곳에 근무하게 되고 정기적인 협회의 강의를 듣는다면 실무자 입장에서 경영주를 통해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모르는 협회의 홍보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매년 2 회(또는 4 회정도 시험을 실시)
2. 동등, 경험, 이론등 자격이 있다 차신하는자 누구나 응시
3. 사양사, 사양기사 등으로 구분.
4. 합격자에 한하여 협회의 정기적인 교육으로 사양, 질병, 일반양돈상식 등 홍보문제 교육.
5. 합격자에 한하여 협회 회원의 업체 또는 경영주가 사양사를 희망하는 양돈장에 알선,

물론 이렇게 되면 많은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인재들이 속출할것으로 보입니다.

대림농장 농장장金 東 振